

지역 매아리

정읍시,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준공... 상권 활성화

정읍시가 내장상동 디자인 거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지난 3월 내장상동 옛 정읍양조장 부지에 착공한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준공해 이달 초 시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14억4000만원(부지 매입 12억5000만원, 주차장 조성 1억9000만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023㎡(309평), 주차 공간 34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시는 저탄소 녹색상장을 위해 주차장 바닥 포장재를 물 빠짐이 좋고 복사열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잔디 블록으로 시공해 친환경 생태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아울러 미소상가 건물 뒤편의 취약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순까지 목재로 디자인된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복면 1번 국도 옆
백년에 한번 피는 신비의 꽃 활짝

수십 년 길게는 백 년 만에 한 번 필 정도로 보기 힘든 대나무 꽃이 복면 1번 국도 옆에 활짝 피었다.

기술센터는 '신비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꽃이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꽃이 핀 대나무를 보기 힘든 이유는 씨앗이 아닌 땅속에서 자라는 줄기로 번식이 이뤄져 매년 꽃이 피지 않고 꽃이 피면 뿌리가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이후 숨은 눈이 자리면서 다시 재생되지만 예전과 같이 회복되는 데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걸린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대나무 꽃을 보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얘기가 있다"며 "시민들도 꽃을 보고 소원을 빌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가 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유진섭 시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 새로운 다짐과 도약 향한 민선 7기 1주년 기념식 개최

정읍시는 1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정읍시 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유진섭 시장 취임 1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민선 7기 시장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민선 7기 주요 성과와 계획 발표, 떡케이크 커팅,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제천보존회와 정읍 출신 바리톤 송기창씨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유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읍 발전을 위해 시민과 동료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 달려왔던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시민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다원시스 착공,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확정, 4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 선정, 정읍방문의 해 선포 등 민선 7기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정읍발전의 미래비전을 발표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정읍 발전을 위해 시민과 동료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쳐 달려왔던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시민 행복과 정읍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해 준 공직자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유 시장은 철도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다원시스 착공, 전기안전교육원 이전 확정, 4년 연속 도시재생 공모 선정, 정읍방문의 해 선포 등 민선 7기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와 정읍발전의 미래비전을 발표하며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유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1년을

재정과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권고의 쾌거를 이뤄내 시민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년간 정읍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희망의 주춧돌을 놓았다"며 "앞으로의 정읍을 위해 단명한 현실을 바로 보고, 미래를 멀리 보고, 시민과 함께 보며 정읍의 가치와 잠재력을 깨워 정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시장은 이날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등 현장근무자 2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유기상 고창군수 취임 1주년 기념 거리청소·농민단체 간담회

유기상 고창군수가 1일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고창읍내 길거리 청소(나서 눈길을 끌었다).

유기상 군수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테마날, 시장 골목 등 읍내 곳곳을 청소한 뒤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어려움을 청취했다.

유기상 군수는 1년 전 취임 때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유기상 군수의 거리 청소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그런 자신의 다짐을 되돌아보고, 민생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했다.

유기상 군수는 청소를 마친 뒤 평소와 다름없이 군청에 출근해 7월

비전다짐의날(한반도 첫수도 군민과 함께 열여덟다)을 하면서 일과를 시작했다.

앞서 유기상 군수는 연초 올 해의 사자성어로 '평이근민(平易近民)'을 선정했다. '군민이 알기 쉬운 공감행정으로 군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유기상 군수는 농생명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군정 제1목표인 '농생명 식품수도' 비전을 설명했다.

유기상 군수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전북 최초 농민수당 지원 등은 지역농민들이 함께 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적도의 땅 고



창에서 땀 흘려 농사짓는 동학농민혁명의 후예들이 제값 받고, 보람 찾는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의례적인 기념행사 대신 민생 현장에 뛰어들어 주민과 같이 호흡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싶었다"며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더 성장하는 새로운 부안!

부안군,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군민 등 500여명 참석

부안군은 1일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소득가득, 사람가득, 행복가득 부안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현수 부안군의회 의장, 최훈열 전 부도의원, 부안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선포식은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클라무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군민 희망영상, 민선 7기 희망메시지, 부안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미래비전 선포식,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글로벌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부안을 매력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군민운동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됐다.

미래비전 선포식에서는 미래먹거리 수소산업 선도적 추진과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성공 개최,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부안 구현,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구현, 글로벌 휴양관광도시 조성 등을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권익현 군수는 "이제부터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부안의 100년을 향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도전을

군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며 "군민 모두와 협력해 부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소득이 가득하고 사람이 넘쳐나는 행복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문화군민운동 결의대회에서는 '친절·질서·창결'을 3대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군민 대표의 결의문 낭독과 함께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를 찾는 전 세계 5만여명의 청소년 맞이에 전 군민이 다함께 열정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 퍼포먼스를 통해 '소득가득, 사람가득, 행복가득 생동하는 부안'을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미래 100년을 향한 합한 각오를 다졌다.

권익현 군수는 "2023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와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기회가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가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더 성장하는 부안, 더 새로운 부안을 위해 한발 한발 함께 나아자"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전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3명 입상

고창노동부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북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관으로 실시한 '2019 전라북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한 고창군 선수 3명이 메달을 목에 걸었다.

1일 고창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지난달 26~28일 전북 장애인복지관 일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정규종목 워드프로에서 강해성(고창장애인자립센터)선수가 금상, 송영종(고창장애인자립센터)선수가 동상을 차지했으며 시범종목인 바리스타 직종에 출전한 최정훈(고창군장애인복지관) 선수가 은상을 차지했다.

강해성 선수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전국장애인기능대회에 전북대표로 참가한다. 이번 전북 대회에 고창군에서는 11명이 출전했다.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가구제작, 귀금속공예, 양봉, 양장, 컴퓨터수리, 한



복, 화해장식 등 정규 19개 직종과 건축제도, 제과제빵, 안마, 바리스타 등 시범 7개 직종, 그림, 네일아트, e-스포트인 등 레저 및 생활기술 직종 등 29개 직종이 개최됐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과 고창장애인자립센터는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진과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생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GIFT SET 1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 (750ml 1ea/12%), GIFT SET 4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 (375ml 5ea/13%), GIFT SET 6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and GIFT SET 7 (375ml 2ea/13%). Contact information: TEL: 063-584-9960, www.gangsanwine.com.